

GIST, 제10회 '창의융합 AX-챌린지' 개최...

대학생 AI·로봇 인재 발굴

- 15개 대학 69명, 두 달간 GIST서 ▲로봇 AX(탁구 로봇 제작) ▲인간-AI 상호작용(체험형 AI 데모 제작) ▲AI 연구 등 3개 분야 프로젝트 수행
- GIST, 교육·멘토링, 장비·공간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 지원



▲ '2026 제10회 GIST 창의융합 AX-챌린지' 시상식에서 참가자 및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맨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트랙1 총괄 교원 AI학과 윤정원 교수, 트랙2 총괄 교원 김승준 교수, 트랙3 총괄 교원 김관영 교수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국내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미래 기술 분야의 창의·융합 역량을 겨루는 '2026년 제10회 GIST 창의융합 AX*·챌린지'를 개최하고, 8월 19일(수) 시상식을 끝으로 약 두 달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GIST AI학과(학과장 김종원)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15개 대학 학부생 69명이 참가**해 로봇 제작과 인간-AI 상호작용(Human-AI Interaction, HAI) 시스템 구현, AI 연구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 **AX**(AI Transformation): 인공지능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문제 해결 방식과 경험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함.

'GIST 창의융합 AX-챌린지'는 2017년 시작돼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으며, 인공지능(AI), 지능로봇, 가상환경,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AI 융합인재를 발굴**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6월 22일(월)부터 8월 19일(수)까지 ▲트랙1: 로봇 AX 경진 ▲트랙2: 인간

-AI 상호작용 경험 설계 경진 ▲트랙3: AI 연구 경진 등 3개 부문으로 운영됐다.

GIST AI학과 ▲윤정원 교수 ▲김승준 교수 ▲김관영 교수가 각 트랙의 총괄 교원을 맡았다.

참가 학생들은 GIST에서 트랙별 교육을 이수한 뒤 교수진과 연구원·대학원생의 멘토링을 받으며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GIST는 프로젝트 수행 공간과 장비, 재료비, 기숙사 등을 지원해 학생들이 약 두 달간 개발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 '2026 제10회 GIST 창의융합 AX-챌린지' 시상식 현장에서 참석자들이 참가팀의 연구 포스터를 관람하고 있다.

약 두 달간의 교육과 프로젝트 수행, 최종 평가를 거쳐 8월 19일(수) 오후 2시 AI학과 테드홀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본선에 진출한 9개 팀이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본선에 오르지 못한 2개 팀에는 장려상이 수여됐다.

트랙1 대상팀에는 300만 원, 트랙2 최우수상팀에는 2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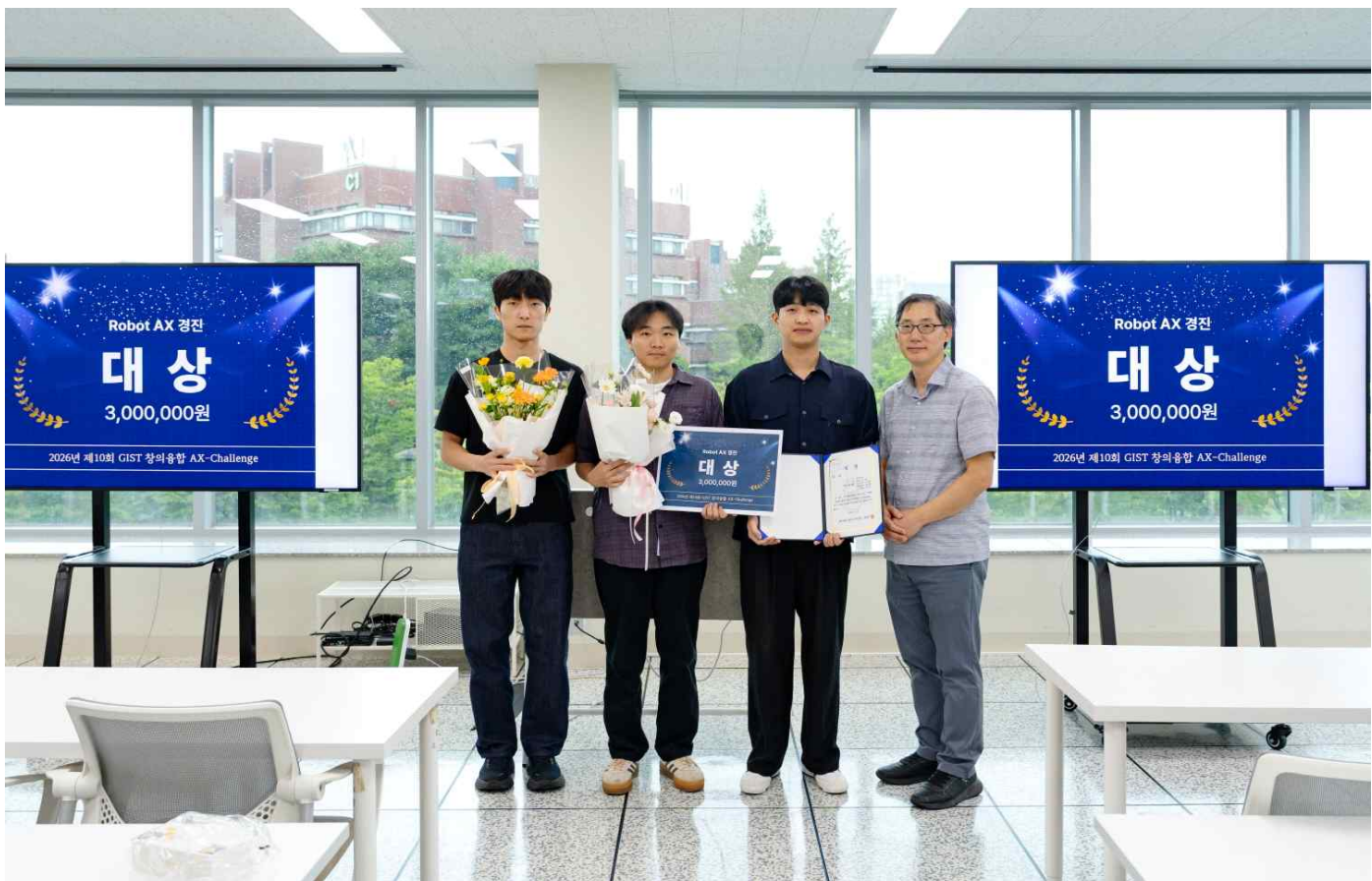
트랙1 '로봇 AX 경진'에서는 참가자들이 로봇 기구학(로봇의 움직임과 구조를 분석하는 학문 분야)과 AI·컴퓨터 비전, 시스템 통합 등에 대한 이론 교육을 바탕으로 탁구 로봇을 직접 제작했다.

완성된 로봇은 탁구공 발사 머신이 보내는 공을 받아치는 기본 기능을 먼저 검증한 뒤, 원격 제어 없이 사람과 실제 탁구 경기를 펼치는 방식으로 성능을 겨뤘으며,

결승전은 8월 14일(금) 열렸다.

수상은 ▲대상 '광주신유빈'팀 곽동혁·김건형·이영택 학생(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3학년) ▲최우수상 'AI 신유빈'팀 박준범 학생(GIST 기계로봇공학과 2학년), 정장엽·양우영 학생(GIST 도전탐색과정 1학년) ▲우수상 'Love all'팀 이승민 학생(GIST AI학과 2학년), 박성진·이보성 학생(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3학년), 류현승 학생(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2학년) ▲동상 '바인딩 오브 아이작'팀 박시준·홍서연 학생(GIST 도전탐색과정 1학년), 이수안 학생(GIST 기계로봇공학과 2학년)이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광주신유빈'팀 곽동혁 학생은 "이번 대회를 통해 컴퓨터공학 지식을 실제 물리 환경에 적용해 피지컬 AI를 구현하는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며 "공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로봇을 제어하면서 실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와 한계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실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AI 융합기술 개발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 '2026년 제10회 GIST 창의융합 AX-챌린지' 시상식에서 '트랙1 로봇 AX 경진' 부문 대상을 수상한 '광주신유빈'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 트랙1 총괄 교원 AI학과 윤정원 교수

트랙2 '인간-AI 상호작용(HAI) 경험 설계 경진'에서는 참가자들이 머리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Head-Mounted Display, HMD)와 3D 프린터 등 장비 활용 교육을 받은 뒤, 사람과 피지컬 AI 시스템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정

의하고 AI를 활용한 해결 방법을 체험형 데모로 구현했다.

8월 7일(금) 열린 최종 평가에서는 참가팀이 포스터 발표와 라이브 데모를 통해 직접 구현한 결과물을 선보였다.

트랙2에서는 ▲최우수상 'EHC'팀 이동찬·조성흙·이승준 학생(한양대학교 ERICA 컴퓨터학부 3학년) ▲우수상 'ARTEMIS'팀 김동우 학생(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4학년), 김수영 학생(대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4학년)이 수상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ARTEMIS'팀 김동우 학생(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4학년)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가상현실(VR) 기술을 직접 활용해 사람과 AI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실제 데모로 구현해 본 경험이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 '2026년 제10회 GIST 창의융합 AX-챌린지' 시상식에서 '트랙2 인간-AI 상호작용 (HAI) 경험 설계 경진'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ARTEMIS'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 트랙2 총괄 교원 김승준 교수

트랙3 'AI 연구 경진(연구인턴)'에서는 참가 학생들이 GIST 개별 연구실에서 멘토 교수의 지도를 받아 약 8주간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했다.

트랙3에서는 ▲최우수상 손건희 학생(공주대학교 인공지능학부 4학년) ▲우수상 김민아·김동우 학생(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4학년)이 각각 수상했다.

특히 **우수상을 수상한 김민아 학생**(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4학년)은 **AI학과 이현주 교수 연구실에서** 신약 개발에 활용되는 단백질과 리간드의 결합력을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을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김민아 학생은 “**기존 모델의 한계를 분석해 이를 보완한 모델을 직접 설계하고 실험해 보는 과정이 재밌었다**”며 “**실험 결과를 분석하면서 모델의 한계와 앞으로 보완해야 할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연구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를 계기로 이현주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6년 제10회 GIST 창의융합 AX-챌린지’ 시상식에서 ‘트랙3 AI 연구 경진(연구인턴)’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김민아 학생(GIST 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4학년)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 트랙3 총괄 교원 김관영 교수

GIST AI학과 김종원 학과장은 “10회째 이어진 이번 대회에서는 ‘**D·N·A(데이터(D)·네트워킹(N)·인공지능(A))**’를 바탕으로 **인간과 로봇, AI 모델 간 다양한 상호작용을 다루는 새로운 시도**가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AX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실증형 융합인재를 발굴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